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 관련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입니다.

일반대학원의 등록금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상한율을 최대치로 반영하여 (2023년 상한율 최대치에서 0.05% 하회)인상, 2025년에도 5% 인상 논의로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학교 규정상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원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대 등 원우들에게 실질적인 환원 효과는 미비하여 불만과 의구심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총학생회는 더 이상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우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우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반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 730명 중 응답자 116명)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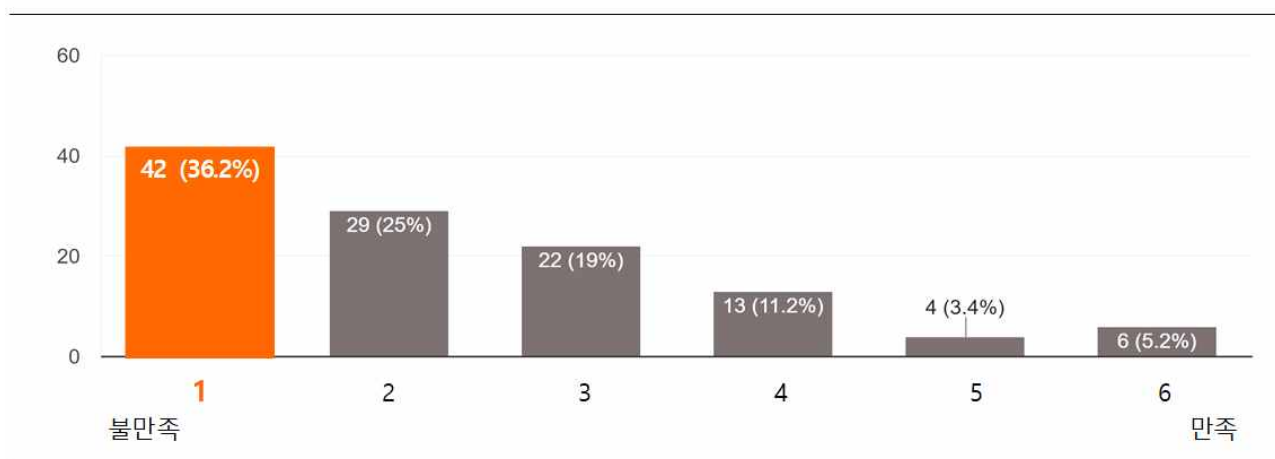
그 결과 응답자의 94%(109명)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이 52.6%(61명), 인하 의견은 41.4%(48명)로 대다수의 원우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6.1%(7명)에 그쳤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질과 학교 평판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과 원우들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 등록금 인상 관련 요구안>

제1안.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일반대학원 원우들의 80.2%(93명)가 현재(2024년 기준) 등록금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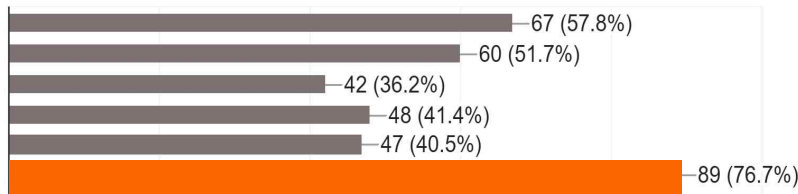


<표 1> 등록금 수준 만족도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는 원우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며, 등록금이 교육의 질, 학교 시설, 학생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등록금 만족도는 단순히 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교육, 시설, 서비스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며, 학교와 원우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 액수 및 운용 방식에 대한 원우들은 종합적인 평가는 낮은 편입니다. 원우들이 등록금이 적절히 운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중복 선택 가능)에 대해 장학제도 부족이 7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교내 시설 노후화(57.8%)와 학습 공간 및 연구 공간의 부족(51.7%),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41.4%)가 이었습니다. <표 2> [참고](#)

* 중복 선택 가능



[시설] 교내 시설이 노후화 되어 불편을 겪을 때 ... 67 (57.8%)

[시설] 학습 공간, 연구 공간, 자치 공간 등 공간의 부족함을 느낄 때 ... 60 (51.7%)

[교육] 강의의 질이 부족하거나, 전임 교원의 부족함을 느낄 때 ... 42 (36.2%)

[교육] 듣고 싶은 강의를 개설되지 않거나, 수강인원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할 때 ... 48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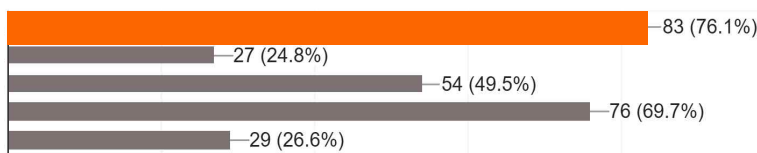
[지원] 타 대학원에 비해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 47 (40.5%)

[지원] 장학제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 89 (76.7%)

<표 2> 등록금이 적절히 운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

원우들은 현재의 등록금 수준에서도 충분한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에서도 ‘기존 등록금 운용에 대한 불만족’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표 3> 참고

* 중복 선택 가능



기존 등록금도 경제적으로 부담됨 ... 83 (76.1%)

학교 법인과 본부의 장기적인 재정건정성 제고 정책 고안이 되어있지 않음 ... 27 (24.8%)

본교로부터 등록금 환원이 느껴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 54 (49.5%)

인상으로 인해 등록금 납부에 대한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음 ... 76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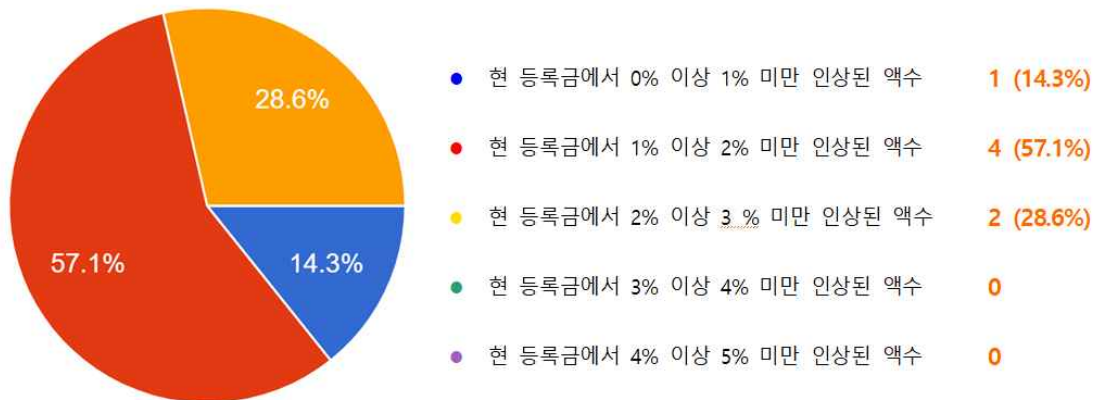
기존 등록금을 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29 (26.6%)

<표 3>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원우들의 불만과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학교 측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먼저 현재 등록금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원우들이 지적한 장학 제도, 시설 개선, 학습 및 연구 공간 확충, 교육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우들의 등록금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등록금 인상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2안.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재조정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인상률은 신중하게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1월14일 기준) 서울 주요 사립대학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추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2%대의 인상률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인상에 찬성하는 소수의 의견조차 3% 미만의 인상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 4> 참고



<표 4> 적절한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반드시 원우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학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등록금 수준에도 이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원우들이 많으며, 설문 결과에서도 장학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표 5> 참고

(5점 만점 기준)

장학제도 개선 (4.41)

▽

교원 환경 개선 (3.89)

▽

교육시설 환경 개선 (3.72)

▽

공간 개선 (3.61)

▽

기타시설 환경 개선 (3.44)

▽

학생 자치활동 지원 확대 (3.09)

<표 5> 등록금심의위원회 본예산(안) 관련 의견

(등록금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영역 중요도 순서)

등록금 부담은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학습 동기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확대는 원우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특히, 본교는 서울 주요 대학 7개 일반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표 6> 참고), 그 안에서도 성적 장학금 비중은 더욱 낮습니다. <표 7> 참고

(단위: 억 원)

순위	학교	등록금 총액	교내 장학금	비율
1	송실대	332	88	26.63%
2	성신여대	88	21	23.69%
3	숙명여대	250	48	19.28%
4	국민대	432	75	17.46%
5	경희대	1,079	164	15.27%
6	고려대	1,549	230	14.87%
7	서강대	488	71	14.57%
8	한국외대	280	20	7.36%

<표 6> 23년도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

(단위: 억 원)

	교내 장학금 소계	성적우수장학금	교내 장학금 내 성적장학금 비율
2021	17	3	18.40%
2022	25	10	39.76%
2023	20	3	16.91%

<표 7> 21-23년도 교내 장학금 내 성적우수장학금 비율

대학원에서 성적 장학금은 연구 능력 및 실적 향상을 유도하고, 이는 곧 학교의 평판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특히 성적 장학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교육 시설 확충 및 낙후된 석·박사 연구실 개보수,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교는 등록금 인상 외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학교 측이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인상을 강행한다면, 앞서 제시한 조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원우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별첨 1>

번호	학교(일반대학원)	인상률	비고
1	송실대학교	5.49%	일반대학원 62억 추가 지출 예정(시설확충, 연구비 지원, 장학금 등) 반영하여 인상
2	경희대학교	2.5%	최초 학교 제시안인 5%에서 2.5%로 합의
3	숙명여자대학교	2.5%	일반대학원 장학금 20억 확충 학교 차원에서 대학원 장학금 및 지원을 지
4	서강대학교	2.3%	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2024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 측정
5	국민대학교	2%	교내 장학금 지급률이 등록금 수입의 50%로 높은 편 공공요금,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률 반영

2025년 1월 14일 기준 등록금 인상률 논의를 완료한 서울 주요 대학교 대학원 5곳

